

## 驪興 閔氏(1586~1656)墓 출토복식

송 미 경

경기도박물관 보존과학실 연구원

### The Excavated Costume from *YeoHung Min*(1586~1656)'s Grave

Mi-Kyung Song

Gyeonggi Provincial Museum, Conservation Lab. Researcher

(2003. 6. 13 투고)

#### ABSTRACT

This study is based on the observation of clothes excavated from of *YeoHung Min*( 1586~1656)'s grave, which enable to understand of woman's funeral clothes among upper class in mid 17C. Lady Min buried with her husband *Jung* (Clan of *Dong Rae*)'s grave where located in *KwanAk gu*, Seoul was move out another place in 1989. During excavation of the grave, 31 pieces form 5 different type of clothes and total 18 pieces form 8 different from Lady *Min* (Clan of *YeoHung*). Remarkable finding from the excavated clothes is the *Nuwool*(veil) which is known to be discovered first time in Korea, and a piece of tooth, which is related with funeral custom of those day, and cotton seeds are found from *chima*(skirt) and *Jogori*(jacket). *Jangot*(coat) has been used for the use of over garment assuming the changes of *Jogori* form during mid of Josun dynasty. It is also remarkable that padded and quilted clothing is still being commonly used until mid-17C.

Key words : excavated costume(出土服飾), funeral custom(葬俗), quilting(누비), *Nuwool*(너울, veil)

#### I. 서 론

여흥 민씨는 동래 정씨 흥곡공(興谷公)과 광경(廣敬1586~1644)의 배위(配位)이다. 정광경은 호가 흥곡(興谷)이며, 벼슬은 이조참판·예조참판 등을 지냈다. 여흥민씨는 부군과 같은 해인, 선조 19년(1586)에 태어났으며, 부군(夫君)이 죽은지 13년

후인 효종 7년(1656) 정월 초 9일에 71세의 나이로 졸(卒)했고 3월에 장사를 지냈다.<sup>1)</sup>

여흥 민씨의 묘는 부군인 정광경(鄭廣敬)과의 합장묘였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산 83번지 관악산 동래정씨 선영(先塋)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묘지 자리에 학교가 설립됨에 따라, 1989년 같은 선영 내 맞은 편 구릉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때 부군인 정

광경, 여흥민씨, 그리고 손자인 정재후(鄭載厚1624~1695)의 묘에서 복식 약 60여점과 명기(冥器), 묘지(墓誌) 등이 수습되었다.

당시 경기도 향토사료관에서 동래 정씨 복식을 기증 받아 1992년 복식보존처리보고서를 발간하였다.<sup>2)</sup> 그 후 10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날 많은 출토 복식이 발굴되어 보고서로 간행되었다.<sup>3)</sup> 이에 그 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이장 작업에 참여하였던 후손과 면담을 통하여 여흥민씨묘의 출토 당시의 상황을 참고하여 복식의 용도와 상태·착용자들을 조사하여 여흥민씨 묘 출토복식이 갖는 의의를 살펴보는데 논문의 목적이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출토복식은 50여건이 넘는다. 하지만 그동안의 출토복식 중 다수는 이장 시 남녀 복식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아 연구자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여흥민씨 묘 출토 복식 경우는 신분과 생몰년이 확실하여, 17세기 사대부 가문의 여성 복식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여흥민씨의 생몰년대인 17세기 초·중반 여성 출토복식은 구례 손씨의 9건이 보고되어있다.<sup>4)</sup>

여흥민씨 묘 출토복식은 습의를 제외한 염의(殮衣)로서, 소렴(小殮)과 대렴(大斂) 그리고 보공(補空) 등의 용도 구분과 염(殮)의 순서를 밝힐 수 없는 것이 제한점이다.

연구방법은 여흥민씨 묘에서 출토된 복식을 직접 조사하였다. 또한 이장 작업에 참여하였던 후손을 면담하고, 문헌과 이미 발간된 보고서들을 참고하였다.

## II. 여흥민씨 묘의 출토복식 고찰<sup>5)</sup>

여흥 민씨 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복식 6종 32점과 치관제구(治棺諸具) 8종 18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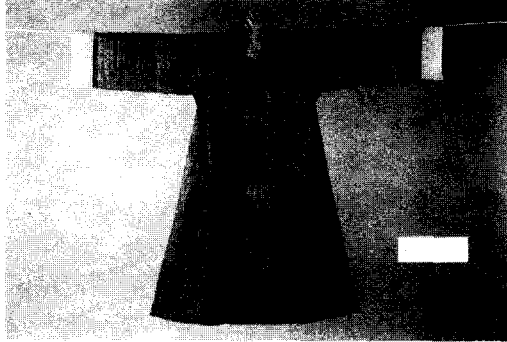
복식유물은 장옷 11점과 저고리 10점, 치마 6점, 적삼 2점과 속바지 2점, 너울 1점이다. 치관 제구는 구의(柩衣), 돛자리[蓆], 명정(銘旌), 지요[地褥], 천금(天衾), 이불[소렴금, 대렴금], 관내 배접용 옷감,

현훈 5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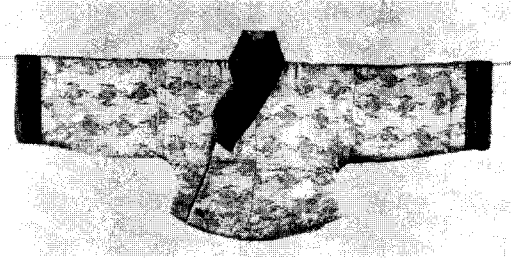
이장 작업 시 참여하였던 후손의 증언과 당시의 사진을 참고하면, 여흥 민씨는 미이라로 출토되었다. 관은 회곽 안에 나무로 만든 외관과 내관의 이중관이었다. 회곽과 외관 뚜껑이 제거된 상태에서, 명정 위에 현훈 5쌍이 보인다. 대렴과 소렴을 해체한 사진에는 복식의 선명한 색상이 남아 있다. 습(襲) 상태의 복식은 흉배를 단 단령을 착용하고 있는 것 같다.<sup>6)</sup> 후손의 말씀에 의하면, 새가 수 놓여진 흉배는 매우 커 가슴 가득했다고 하며, 이장 당시에 비슷한 종류의 옷을 구할 수 없어, 습의에 해당되는 옷들은 이장 당시 그대로 입혀드렸다고 한다. 현재 경기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은 소렴과 대렴, 보공 용도의 복식이므로, 복식의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 1. 장옷

장옷은 조선시대 초·중기에 남녀 모두 입었던 포(袍)의 일종이다. 장옷의 특징은 좌우대칭형으로 목판 것이 이중 섹과 나란히 달리고 액하(腋下)에 소형 삼각무가 있으며 태수(苔袖)가 달린 직령(直領) 교임형(交衽型)이다.<sup>7)</sup> 여흥민씨 생몰년대인 17세기 출토복식 가운데 장옷이 출토된 경우는 7건<sup>8)</sup>이 있어 이 시기의 대표적인 여성 표의(表衣)라고 생각된다. 여흥민씨의 장옷은 11점이 출토되었으며, 김덕원(1634~1704)의 부인인 전주이씨의 장옷은 8점<sup>9)</sup>, 안동권씨(1664~1722)의 묘에서는 장옷이 2점이 출토되었다. 여흥민씨의 분묘에서 출토된 장옷은 모두 11점으로 7점은 숨을 둔 솜 장옷, 4점은 누비장옷이다(그림 1). 11점 가운데 옷고름과 동정이 떼어진 장옷은 2점이 있으며, 옷고름은 있으나 동정이 없는 장옷도 1점이 있다. 장옷 화장은 74.5~85.5cm, 길이는 124~130 cm내외이다(표 1). 여흥 민씨 묘 출토 장옷 가운데, 품이 넓고 큰 장옷의 경우에는 염(殮)의 흔적이 남아 있어, 장옷은 소렴과 대렴 때 시신을 감싸는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No. 1429 장옷



<그림 2> No.1444 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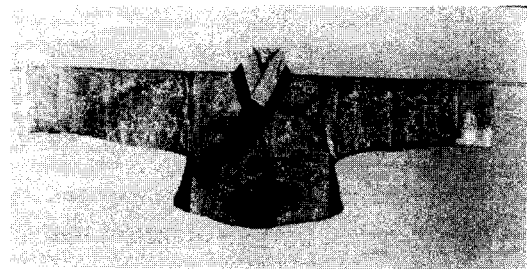
감이 연결되어 약 15cm 너비 내외로 접은 형태이며, 거들지의 안감은 거친 명주를 사용한 것도 있

<표 1> 여흥민씨 장옷의 치수 및 특징

유물번호 (No.)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1436	후손보관	
구성	숨	숨	누비	누비	누비	숨	숨	누비	숨	숨	숨	
소재	길	화문능	세주	화문주	주	화문능	무문능	화문단	무문능	주	주	주
	깃	화문단	세주	무문단	주	-	-	-	-	세주	주	주
	안감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세주	주	주	주
거들지	겉	주	주	주	주	주	주	주	주	화문주	주	주
	안	세주	면포	면포	주	면포	주	주	주	주	면포	마포
치수	길이	128	125	124	128	127	129	130	127	126.5	129	126
	화장	83	79.5	81	76	79	85.5	81	74.5	77	80	78
	고대	20	18	19	20	18	19	18	18.4	19	18	20
	폭	58	66	60	64	65	66	70	66	57	60	60
	진동	29	32	27.5	31.5	31	34	31	32	29	30	32
	수구	24	27	24.5	27	27	28.5	28	28	23	25.5	28
웃고름	×	○	○	○	○	×	○	○	○	○	○	
동정	×	○	○	○	○	×	○	○	○	○	×	
특징	웃고름을 고려 있음	슬기 따라 우공 개 누빔 안감이 있음	저고리 (1445)와 같은 감	안감의 안설에 아랫단 만 있음	훼손 심함	겉, 안감 모두 흔적 함	안감 염 심 함	훼손 심 함	겉, 속고 름 2쌍 모두 있 음	거들지 화사 ◇형 문주 용 으로 연 있 음	안감 쪽 으로 연 있 음	겉고 름, 속고 름 1개 씩 남 아 있 음

## 2. 저고리

여흥 민씨의 저고리는 10점으로 누비 3점, 숨 6점, 그리고 겹저고리 1점이다. 저고리의 구성상 아직도 솜옷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대적 특징을 보여준다(표 2). 저고리의 웃고름과 동정이 없는 것(그림 2)이 4점이며, 거들지가 있는 것은 4점이고, 나머지 6점은 끝동이 달려 있다. 거들지는 현대의 turnback cuffs처럼 거들지의 겉감과 저고리의 안



<그림 3> No.1440 저고리

었으며, 면포·마포를 사용하여 심감을 대신 한 것도 있었다. 끝동은 소색(素色)의 작은 꽃무늬 옷감을 사용하여 마치 거들지처럼 보이는 것도 있으며, 그 외는 짙은 색을 사용하였다. 깃은 10점 모두 당코 깃으로 당코의 높이는 7.5~8.5cm이다. 안깃은 완전히 내어 달린 형이 5점, 중간 정도 내어 달린 형이 4점, 완전히 들어와 달린 형이 1점이다. 의원군(義原君) 배위 현부인(縣夫人) 안동 권씨(1664~1722)의 저고리 8점이 모두 내어 달린 형(10)인 것으로 보아 여흥 민씨(1586~1656)의 생존 시대에는 안깃이 완전히 들어와 달린 형에서 완전히 내어 달리는 형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마기가 있는 저고리(그림 3)는 4점이다. 결마기의 형태는 2종류로 사다리꼴 무와 작은 삼각형

무가 있는 형태가 3점(No.1447, 1440, 1438)과 사다리꼴 무와 작은 삼각형 무가 합쳐진 형태(No.1445)가 1점이다. 그 외는 결마기가 없이 굴려져 사다리꼴 무와 작은 삼각형 무가 합쳐진 것과 같은 모양이다. 여흥민씨의 저고리 가운데 No.1438 누비저고리 안깃 끝, No.1439 겹저고리 결설의 끝, No.1443 솜저고리 안깃 궁둥이 끝, No.1445 저고리의 당코 깃 끝에는 실뜨리가 달려 있다. 특히 No.1439 저고리의 거들지 속에서는 씨앗이 들어 있는 목화 1송이가 들어 있었다. 출토복식 가운데 목화가 나온 것은 처음 보고된 것이다.

여흥 민씨의 저고리를 살펴보면, 결마기와 안깃 그리고 거들지와 끝동 등에서 다양한 형태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가 조선시대 후기의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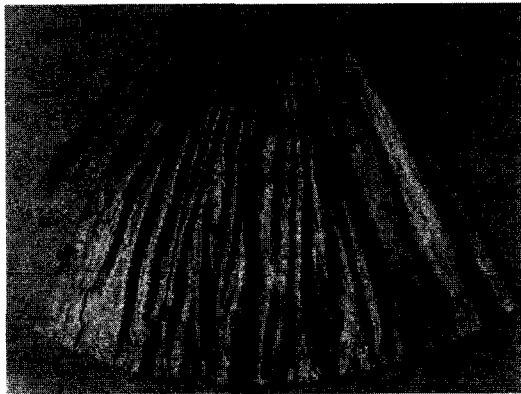
<표 2> 저고리 치수 및 특징

유물번호 (No.)	1438	1439	1440	1441	1442	1443	1444	1445	1446	1447	
구성	누비	겹	솜	솜	누비	솜	솜	누비	솜	솜	
소재	길	주	화문단	화문능	주	운문단	운문단	화분주	주	무문능	
	깃	화문능	"	"	주	"	주	주	"	화문단	
	결마기	"	×	"	×	×	×	"	×	무문능	
	끝동	화문주		화문능	주	주			화문능	세주	
거들지		주				주	주	세주			
문양	1440발동 감과 동일함	×	모란만초 소화문	모란만초	×	운문	운문	화분 나비 난초	끝동:모란	연화문 보문	
치수	길이	46	46	50	52	49	58	54	50	52	50
	화장	75.5	78	77	79	82	81	79	70	79	75
	고대	18.5	17	20	20	19.5	19	19	19	22	18
	폭	47	51	49	58	53	56	58	46.6	60	49
	전동	30	32.5	29	35	32	38	35	29.5	35	28
	수구	21	25	23	28	23.5		28	22.5	28	24
깃 모양	결깃	당코깃	당코깃	당코깃	당코깃	당코깃	당코깃	당코깃	당코깃	당코깃	당코깃
	안깃	중간정도 내어달림	중간정도 내어달림	완전 내어달림	완전 내어달림	중간정도 내어달림	완전 들어와 달림	완전 내어달림	완전 내어달림	완전 내어달림	중간정도 내어달림
결마기	○	×	○	×	×	×	×	○	×	○	
웃고름	겉고름 1쌍	○	○	×	속고름이 달려있음	×	×	○	×	○	
등경	○	○	○	×	○	×	×	○	×	○	
거들지	×	○	○	○	○	○	×	○	×	×	
비고	수구끝 안 덧단(5cm) 있음, 안쪽으로 염습 흔적 있음	거들지속에 목화 1송이 들어 있었음	깃 다시 얹힌 자욱 있음	소매부분 옷을 늘린 흔적 있음	매우 깨끗함. 고대와 화장이 맞지 않음	안깃 궁둥이에 실뜨리 있음	안깃 다 시 얹힌 자욱 있음	소매 부분에 누비 풀린 흔적 있음	고대부분에 넓은 오염 흔적이 있음	안쪽에 염습 흔적이 심함.	

고리 형태로 가는 과도기임을 알 수 있다.

### 3. 치마

여흥 민씨 분묘에서 치마는 6점이 수습되었다 (그림 4). 화문룡 솜치마 2점, 견 누비 1점, 주 누비 2점, 주 솜치마 1점으로 총 6점 가운데 솜치마 3점, 누비치마 3점이다. 허리 말기와 끈은 모두 남아 있으나, 이 가운데 No.1452 1점은 한쪽 끈이 없다.



<그림 4> 1449 치마

주름 방향은 현대와 같았지만, 치마 끈 길이와 선 단위치로 보아, 치마 여미는 방법은 오른 치마가 아니었나 싶다. 치마의 폭은 화문단과 화문룡은 5 폭, 그 외 주(紬)로 만든 치마는 10~12폭을 연결하였다. 치마 허리끈이나 치마폭의 시접 방향 등은 일정한 규칙이 없는 것 같다(표 3).

No. 1451 치마의 경우에는 좌우 치마끈의 옷감 (고운 紬, 거친 紬)이 달랐으며, 고운 주로 만든 치마끈의 끝에서 한지에 싼 치아가 발견되었다. 이는 민속적인 성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치마끈에서 치아가 발견된 것은 두 번째 보고된 것이다. 2001년 안동대학교 소장 선산김씨의 치마에서 대추씨와 어린아이의 유치가 발견된 것이 보고되었다.<sup>11)</sup>

### 4. 적삼

여흥민씨 묘에서는 적삼 2벌이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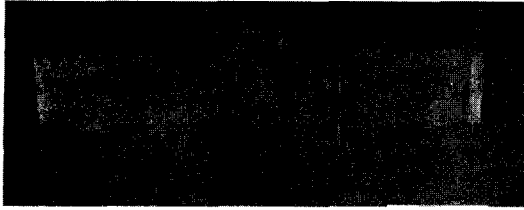
2벌 모두 홀로 만든 적삼이다. 1점은 목판 깃 (그림 5), 1점은 둥그레 깃이다. 깃의 형태로 보아 목판 깃은 여자용, 둥그레 깃은 남자의 것으로 생각된다. No. 1456 적삼은 소매 끝에 한삼이 달려있다

<표 3> 치마의 치수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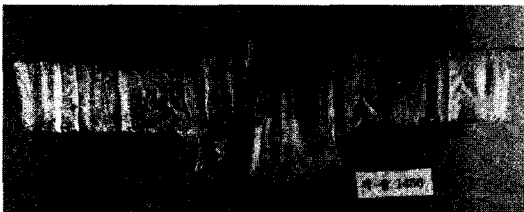
유물번호 (No.)	1448	1449	1450	1451	1452	1453	
색상	상색	상색	상색	파란색	파란색	자주	
소재	소화문룡(주)	화문룡(주)	주(주)	주(주)	주(주)	주(주)	
분류	솜	솜	누비(1.2cm)	누비(3cm)	누비(2.5cm)	솜	
치수	길이	92.5	91	92.5	85.5	95	90
	나비	341	333.5	309.5	321	307	360
1폭당(나비/수)	43.5-46(8)	67내외(5)	30내외(10)	26내외(12)	29-33(10)	35.5-37(10)	
허리(폭/나비)	98/4.5	4.3/81	3.5/82	2.5/83	3.5/84	4/89	
허리끈 (폭/나비)	4.5/56.5	4.3/75.5	3.8/75	2.5/43.5	3.3/85	3.2-3.5/66	
	4.5/73.5	4.8/75.5	3.8/61	3/44		3-3.5/83.5	
주름수	35	35	33	35	30	40	
비고	허리 일부 찢어짐	보존처리 시 다시 주름 잡은 것으로 추정	치마 안단 없음	치마끈 속에 치아 발견됨	치마끈 한쪽 없음	치마 안단 없음	

치마길이는 85.5~95cm 이며 치마 나비는 307~360cm이다. 치마허리는 81~98cm, 허리나비는 2.5~4.5cm이다. 주름 개수는 30~40개 정도이다. 치마

(그림 6). No. 1456은 남자의 옷으로, 여흥민씨 묘에서 출토된 수례지의(褻禮之衣)의 예이다. 이장 작업 때 참석하였던 후손의 말에 의하면 관을 열었



<그림 5> 1455 적삼



<그림 6> 1456 적삼



<그림 7> 1459 바지

길이는 95cm~97cm, 바지 통은 60cm~64cm이다. 바지의 형태는 단속곳 형태이나, 아귀<sup>12)</sup>는 가로형이다. 이 바지는 어깨 끈이 달려 있어 착용하면 가슴 부분에 오게 되어 있어, 오늘날의 브래지어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보고된 출토복식 가운데 어깨 끈이 달린 바지는 여흥 민씨의 바지를 제외하고 2건이 있다. 2건 모두 충북대학교 소장 유물로 물년이 1629년(추정)인 구례 손씨의 바지 3점과 순천김씨

을 때 대렴 상태 위에 적삼이 있었다고 한다(표 4).

<표 4> 적삼의 치수 및 특징

유물번호 (No.)	구성	소재	치수					깃모양		웃고름	동정	비고
			길이	화장	고대	폭	수구	겉깃	안깃			
1455	홀	주	43	68	19	57	22.5	복판깃	들어달림	×	×	
1456	홀	세주	53	98.5	18	60	29	등그레깃	내어달림	○	×	한삼달림

### 5. 바지

바지는 2점이 수습되었다(표 5).

(1537~1594) 바지 2점<sup>13)</sup>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어깨 끈이 달린 바지는 여흥민씨의 생몰년인 17세기 중반까지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 바지 치수

유물 번호 (No.)	옷감 (겉/안)	어깨끈	허리띠	허리끈	길이	바지통	바대 (길이/나비)	주름 갯수	아강이 나비	누비 간격	안단 너비
1458	주/주	5.8×22(44)	13×43(86)	4/4.3×69 4.5/4.8×60	95	64(128)	18.5/13	3/3	9	1.2-1.3	1
1459	화문주/주	4×24(48)	10.5×42(84)	3.5/3.3×65.5 3.3/2.8×86	97	60(120)	21.5/15	3/3	8	2-2.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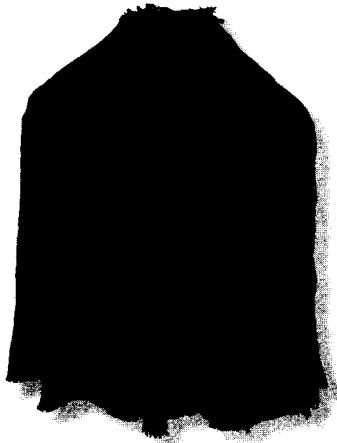
여흥민씨 묘에서 출토된 2점 바지의 형태와 구성·치수는 매우 비슷하다. 솜을 얇게 두고 1.2cm~2.5cm 내외로 곱게 누빈 단속곳 형태의 밑이 막힌 속바지로 어깨 끈이 달려 있다(그림 7). 바지

### 6. 너울(유물번호 1470)

조선시대 여인의 쓰개류의 일종으로 얇은 천이 너울거리는 형상에서 이름이 붙여졌다. 현재 남아

있는 너울은 궁중유물전시관 소장 너울 1점<sup>14)</sup>과 여흥민씨 묘 너울 그리고 고려대학교 소장 너울 1점<sup>15)</sup>이 있다.

여흥 민씨의 너울은 출토 당시 시신의 머리에 씌워져 있었다고 한다. 사경교라(四經交羅)로 된 홀 너울로, 색상은 청색과 자주색이 섞인 검정이다. 너울의 구성은 윗변 6.5cm, 아랫변 55cm, 길이 70cm의 사다리꼴 6개를 이어 샷갓형의 모체를 만들었다. 그 위에 지름 23cm의 뽕죽한 꽃잎형태 옷감 2겹을 엇갈리게 배치하여 연꽃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지름 13cm의 둥근 꽃 판을 올려 모정을 만들었다. 꽃 판 위에는 자주색 실로 7cm 길이의 +모양을 중심으로 방사선 모양의 문양을 박음질하여 수를 놓았다. 모정은 파란색 실 2줄로 싱글게 시침질하여 연결하였다. 너울의 도련은 단 처리를 하지 않아 울이 풀려있다. 너울 안쪽에 너울을 쓸 때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너울 립(笠:모자)을 고정하기 위한 용도의 끈이 달려있다. 그 공간에 길이 168.5cm의 흰색 면사를 꼬아서 만든 끈을 넣었다(그림 8).



<그림 8> No.1470 너울

### Ⅲ. 여흥민씨 묘 출토 염습제구 고찰

염습제구란 습과 소렴·대렴 그리고 하관 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복식류이다.

여흥 민씨의 염습제구로는 명정, 현훈, 구의, 천금, 지요, 돛자리, 관내 배접용 직물 그리고 대렴금과 소렴금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여흥 민씨의 유물은 일부만 수습되었기 때문에 이장 당시의 사진을 보면 대렴포, 먹목 등의 염습제구가 보이지만 유물의 목록에는 제외되었다.

#### 1. 구의(柩衣) (유물번호 1454)

소렴과 대렴이 끝난 후 시신을 덮는데 사용하는 이불을 구의(柩衣)라고 하며, 하관 시에 관을 덮는데 사용한다. 여흥 민씨의 구의는 운문단을 사용하여 만들었다(그림 9). 길이 193cm, 높이 52cm이다. 한쪽으로 아삼(亞襲)이 있었던 흔적이 있다. 여흥 민씨의 염습제구로 아삼과 불삼(黻襲)은 수습되지 않았지만, 이장 당시의 사진에는 아삼의 아(亞)자가 선명한 붉은 색으로 나타나 있다.



<그림 9> No.1454 구의

#### 2. 돛자리(蓆) (유물번호 1457)

칠성판 위에 까는 돛자리이다. 이 돛자리 위에 지요를 다시 깐다. 여흥 민씨의 돛자리는 길이 169cm, 너비는 상부 44cm, 하부 36.5cm이다. 왕골로 만들었고 테두리는 자주색 명주로 감쌌다.

#### 3. 지요(地褥) (유물번호 1467)

지요란, 칠성판 위에 까는 요를 말한다. 여흥 민씨의 지요는 명주로 만들었으며, 솜이 약 2cm 두께로 두둑이 놓여 있다. 전체 길이는 168cm, 너비는

상부가 45.5cm, 하부가 38cm이다. 가장자리는 상부 6cm, 하부 4cm 양옆 6.5~6cm 폭으로 감싸 넘겼다. 상하좌우 끝치리는 모난 것을 접어서 가장자리를 작은 특이한 모양이다.

4. 이불(小殮衾·大斂衾) [유물번호 1468, 1469]

소렴금이란, 소렴할 때 사용한 이불을 말하며, 대렴금은 대렴 할 때 사용한 이불을 말한다.

여흥민씨의 이불은 2점이 수습되었다(표 6).

<표 6> 이불

유물 번호 (No.)	전체 길이	동정	깃	동	전체너비
1468	230	13	35	182	176.5 (59/58.5/59)
1469	231	14	34	183	179 (59/60/60)

2점 모두 길감과 이불깃은 화문단을 사용하였고, 이불 동정과 안감은 명주를 사용하였다. 솜은 2점 모두 3cm 정도 두둑이 들어있다. 이불 2점 가운데 No.1468이 No.1469에 비해 오염된 흔적이 훨씬 더 심하여 소렴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5. 명정(銘旌) [유물번호 1471]

명정은 붉은 색 옷감에 죽은 사람의 품계·관직·성명을 쓴 것이다. 매우 고운 숙초(熟絹)에 검은 색으로 ‘貞夫人驪興民氏之柩’라고 써 있다. 여흥민씨의 명정식은 정부인(貞夫人)으로 남편의 품계가 2품인 것을 알 수 있다. 여흥민씨의 명정은 너비 64cm, 길이 221cm로, 명정의 위쪽에는 2.3cm, 아래쪽은 2cm의 단을 접었는데 시접은 5mm씩 두었다. 단은 굵은 자주색실로 1.8cm 간격으로 공그르기를 하였다. 위·아래의 단은 명정을 꿰어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흥민씨의 명정은 위·아래 단이 있는 드문 경우라고 생각된다. 구의 위에 명정을 놓고 명정 위에 현훈 5쌍을 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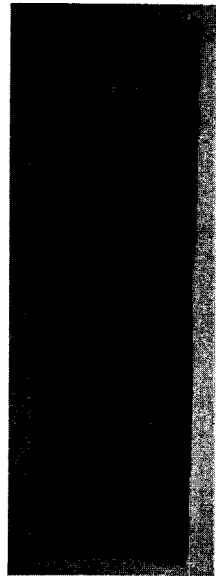
6. 현훈(玄纁) [유물번호 1474~1482, 후손보관 1점]

현훈은 장례 때 천신과 지신에게 폐백으로 드리는 검은색 비단과 붉은 색 비단을 말한다.

『예기』에 현훈은 "검은 비단 여섯과 붉은 비단 넷을 쓴다"<sup>16)</sup>고 『주자가례』<sup>17)</sup>에 나와있다.

여흥민씨의 현훈은 5쌍이 출토되었다. 다른 분묘에서 출토되었던 현훈이 1쌍이었던 것에 비해 여흥민씨의 현훈 5쌍은 『예기』·『주자가례』에 나와 있는 현훈의 수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명정에는 현훈의 색깔과 위치가 아직도 남아 있다. 출토 당시의 사진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여 보면 그림 10과 같다. 여흥민씨의 현훈은 매우 고운 숙초(熟絹)로 만들었으며, 옷감 44~45cm 전폭을 사용하였으며, 전체길이는 380cm 내외이다. 현재 현훈 위에 비단실로 매듭이 있는 것은, 후손 보관 1점뿐이다.



<그림 10>  
명정과 현훈

7. 천금(天衾) [유물번호 1472]

대렴이 끝난 후 덮는 이불을 말한다.<sup>18)</sup> 여흥민씨의 천금은 화문단으로 전폭 59.5cm, 길이 213cm를 사용하였다. 위·아래 부분에 2mm 시접을 두고 곱게 공그르기를 하여 끝치리를 하였다. 희미하게 전체적으로 관 모양으로 얼룩이 남아 있다. 천금에 사용한 화문단은 대렴금과 소렴금에도 사용된 옷감이다.

8. 관내 배접용 옷감 [유물번호 1473]

관내를 장식한 옷감이다. 출토당시 사진에 보이



는 관 뚜껑을 장식한 것으로 생각된다. 상색과 쪽색이 섞여 있는 상태이다. 길이는 168.5cm 너비는 상부44cm, 하부 36cm이다.

#### IV. 결 론

여흥 민씨 묘에서 출토된 복식류는, 습(襲)에 사용된 복식을 제외한 복식6종 32점으로 장옷 11점·저고리 10점·치마 6점·적삼 2점·속바지 2점·너울 1점이며, 치관제구(治棺諸具)는 8종 18점으로 구의·명정·지요·천금·관내 배접용 옷감·대렴금·소렴금 각 1점과 현훈 5쌍이다.

여흥 민씨의 분묘에서 출토된 복식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생물년이 확실한 조선 중·후기 반가의 여성복식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 자료이다. 피장자의 성별과 신분이 불확실하여 많은 출토 복식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여흥 민씨의 경우에는 연대가 불확실한 다른 출토 복식의 절대 연대를 설정할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둘째, 17세기 중엽 사대부가의 여성 습의(襲衣)를 제외한 염의(殮衣)와 보공에 사용된 복식 및 치관제구를 살필 수 있었다. 문헌과 회화에서 볼 수 있었던 반가(班家)에서 사용된 너울이 처음으로 출토되었다. 이로 인하여 조선시대 중·후기의 너울의 구성법을 알 수 있었다. 출토된 복식 가운데 장옷이 11점 출토되어 조선시대 중·후기 여성의 일반 표의(表衣)였음을 알 수 있다. 여자 저고리 10점은 모두 당코 깎으므로, 조선시대 중·후기에 당코 깎이 완전히 정착된 것을 보여 주며, 결마기의 형태는 겨드랑이에 사다리꼴에 작은 삼각형 무가 달린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이 함께 나와 결마기의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 저고리의 안깃은 완전히 들어앉힌 형, 완전히 내어 달린 형, 중간형이 혼재되어 있어, 안동권씨(1664~1722)의 몰년인 18세기에 이르러 안깃 형태가 완전히 내어 달린 형으로 고정되어 가는 과도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하의(下衣)

로 출토된 누비 단속긋형 속바지 2벌은 어깨 끈이 달려 있다. 어깨 끈이 달린 바지는 순천 김씨(1537~1594)와 구례손씨(1629년 추정)의 유물이 있다. 이로 보아 어깨 끈이 달린 바지는 17세기 중엽까지 착용된 것으로 짐작된다.

셋째, 조선시대 중·후기의 상·장례 풍습과 관련된 몇 가지 유물이 출토되었다. 현훈 5쌍이 사용된 것도 드문 예이다. 장옷과 저고리는 옷고름과 동정 모두 있는 것과 옷고름과 동정을 뎀 것 등이 함께 나왔다. 특히 옷고름과 동정을 뎀 옷들은 솜을 두둑이 두었고 옷의 크기도 커 소·대렴 때 시신을 씻던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여흥 민씨 치마 허리끈에는 치아 1점이, 겹저고리의 거들지에서는 목화 1송이가 나온 것도 특이한 점이다.

넷째, 여흥 민씨 몰년(1656) 즈음까지 솜옷과 누비옷이 많이 사용된 것도 특징이다. 복식 31점 가운데 적삼과 겹저고리 1점을 제외한 29점이 솜옷이나 누비옷이었다. 솜옷과 누비옷도 솜 두께가 0.5~1cm 정도로 두둑하였다. 의원군(義原君) 배위 안동 권씨(1664~1722)의 복식에는 솜이나 누비의 사용 빈도가 높지 않으며, 솜의 두께도 얇은 것을 비교해 보면, 솜의 사용이 보편화되었던 당시의 시대적 특징도 살펴 볼 수 있다. 치마의 안단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혼재되어 있고, 저고리와 장옷 등의 옷고름 시접 방향도 다양하다. 솜옷에는 2땀 삼침을 이용하여 가장자리에 솜을 고정시켰다.

아쉬운 것은 출토 복식 가운데 습의(襲衣)가 제외된 점으로, 출토 시 상황은 후손의 증언과 사진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귀한 유물을 경기도 박물관에 기증하여 주신 동래 정씨 흥곡공파(興谷公派) 파종회(派宗會)관계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참고문헌

- 1) 東萊鄭氏家祿 卷之五. pp. 23-25.
- 2) 京畿道 (1992). 東萊鄭氏 興谷公墓出土遺衣 保存處理報告書, 경기도.

- 3) 박진영 (2000). 조선시대 복식 유물에 관한 연구. 서울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p.14-18.  
1992년 이후, 발간된 출토 복식 조사보고서는 김명숙의 홍우협묘 출토 17세기 복식 논고(1993)의 23건이 있다.
- 4) 고부자, 박승원 (2003). 조경묘출토유. 서울 : 역사 박물관. pp. 130-133.
- 5) 이하 논문에 사용된 치수는 cm이며, 유물번호는 경기도 박물관 소장 번호로 No.로 표시한다.
- 6) 김성환 외 (2003). 동래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 보고서. 서울 : 경기도박물관, pp. 7-14.
- 7) 박성실 (1992).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373.
- 8) 박진영 (2000). 앞의 글. p. 50.
- 9) 고복남 (1991). 韓國傳統服飾史研究. 一潮閣. pp. 365-373.
- 10) 경기도박물관 (2001).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서울: 경기도박물관. pp. 348-370.
- 11) 이은주 (2001, 10). 출토복식을 통해 본 조선시대 민속의 몇 사례, 역사민속학회 연구발표회 80회 발표문요지 참조.
- 12) 한글학회 (1996). 우리말 큰사전. p. 2684: 두루마기나 속곳에 옆을 터 놓은 구멍.
- 13) 김동욱 (1985). 壬亂前後의 出土服飾, 百濟의 服飾. 서울: 백제문화재개발연구원, p.292.
- 14) 김애리 (1981). 羅兀에 관한 考察.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 70~71.
- 15) 조선일보사 (2002. 9. 10). 기사참조
- 16) 玄六纁四各長丈八尺主人奉置柩旁再拜稽顙在位者皆哭 盡哀家貧或不能具比數則玄纁各一可也.  
[補註]本注, 玄六纁四女卑色纁淺紅色巧書禹貢注玄赤黑色幣也纁謂絳色幣也.
- 17) 周喜지음, 임민혁 옮김 (1999). 주자가례. 서울: 예문서원. p. 364.
- 18) 李緯. 喪禮. 四禮便覽.